



보도일시	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.		
단체명	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중소벤처금융특별위원회	공동위원장	이동주, 한종관
담당자	김용봉 부위원장 / 010-2087-0021	E-mail	ksos999@naver.com
사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O	영상	<input type="checkbox"/> X
기타 첨부자료			
<p>민주당 선대위, 24일 중소벤처금융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</p> <p>— 중소벤처기업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7가지 정책 제언 —</p>			

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**중소벤처금융특별위원회(공동위원장 이동주, 한종관) 출범식**이 24일 1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(지하 1층)에서 열렸다.

이날 출범식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서면축사를 통해, 중소벤처기업은 전체 기업체수의 99%, 고용의 83%를 차지하는 **일자리의 보고(寶庫)**라고 밝혔다. 한국이 GDP규모 세계 10위, 무역규모 세계 8위로 성장하여 OECD로부터 선진국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 덕분이라며 그 공을 강조했다.

윤호중 원내대표, 우원식 · 노웅래 · 진성준 의원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뿌리와 허리가 튼튼한 경제구조로 변모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**국민소득 5만 달러, 코스피 5천,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**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.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이동주 공동위원장은 **중소벤처기업의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데** 우리 위원회가 **앞장서자고 호소**하면서 국회에서 **혁신성장을 위한 제도 입안에 최선을 다**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.

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출범식에 그치지 않고 **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**를 기반으로 **7가지 정책이 제안**됐다.

한종관 공동위원장은 우리 경제구조가 대기업 및 중견기업 0.1%, 중기업 1.5%, 소기업 98.4%의 **침탑형 구조**라며 **중기업이 튼튼한 항아리형 구조**로 바뀌어야 국가와 사회가 튼튼하고 부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고,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.

- ① 지식재산금융 확대 및 관리기구 개편
- ② 중소기업 혁신성장(scale-up)과 항아리 경제 구축
- ③ 중소기업 매출채권금융 활성화
- ④ K-O2O무역관을 통한 글로벌 진출 및 수출 촉진
- ⑤ 전통시장 온택트(ontact) 및 디지털화
- ⑥ 중소기업 사업승계 원활화
- ⑦ 성실 실패 기업인 채무조정 및 신용대사면

여기저기연구소 **문홍선 소장**은 오늘 행사가 단순한 출범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**실효성있고 현장감있는 정책을 연구하여 제안했다**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. (끝)

[첨부] 현장 사진

